

# BUYSEMI 제공

(<http://www.buysemi.co.kr>)

각종 웨이퍼 에서 반도체 단위공정서비스 전문 업체

담당자 : 김 원일

(Tel : 02-471-2588 , Fax : 02-471-2589 , 010-9173-7016)

박동건 사장 ‘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 · 김기남 사장 ‘반도체산업협회장’ 맡아

삼성그룹 계열사 대표 중 이달 내 관련산업 협회장으로 공식임기를 시작하는 사장이 여럿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회사뿐만 아니라 업계를 대표하는 선수로 뛰게 되는 셈이다.

특히 사장으로 승진한 뒤 외부 대표 직함까지 갖게 되는 사장들도 있어 향후 활동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기남 사장



박동건 사장

대표적인 인물이 박동건 신임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12일 오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 박 사장은 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으로 추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은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대표가 돌아가면서 3년 임기로 맡아왔다.

전임 협회장인 김기남 당시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이 지난해 말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박 사장이 자연스럽게 직무를 이어받게 됐다.

박 사장의 임기는 전임 김 사장의 잔여임기인 1년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 후에는 순서대로 LG디스플레이 사장이 협회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박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비공식적인 만남을 가질 전망이다.

보통 신임 회장이 선임되면 이사회, 주총이 끝난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박 사장의 공식적인 첫 대외활동인 만큼 이 자리에서는 올 한 해 디스플레이 업계 전망과 당면과제, 대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활발하게 오갈 것으로 보인다.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는 "박 사장이 취임 후 사실상 첫 공식 대외활동으로 관련업계 역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스플레이산업협회장 외에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장직 또한 박 사장이 맡을 예정이다.

반도체산업협회 역시 올해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다.

기존 반도체산업협회장이었던 전동수 당시 삼성전자 사장이 지난해 말 인사에서 삼성SDS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 사장의 후임인 김기남 사장이 새로운 반도체산업협회장으로 활동하게 될 전망이다. 반도체산업협회 정관엔 협회장이 소속회사의 인사이동으로 협회장을 계속 맡을 수 없을 경우 해당 회사 후임대표가 협회장을 이어 맡도록 명시돼 있다.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3년의 임기로 취임한 뒤 1년간 활동했다.

남은 2년은 김 사장이 '제11대 반도체산업협회장'으로서 메울 전망이다. 반도체산업협회는 오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24차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다만 인쇄전자산업협회의 경우 수장 교체 없이 김기남 사장이 올해도 회장직을 맡기로 했다.

양사 점유율 40%대로 세계시장 평정... 중국 급성장세 판도변화 `변수`

파나소닉, 샤프에 이어 소니가 TV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삼성과 LG전자가 TV시장을 확실하게 평정하게 됐다.

소니는 지난 7일 5000명의 구조조정과 TV 부문 분사를 발표했다.

소니의 이같은 발표는 브라운관TV 시기에 전세계TV 시장을 석권한 회사였던 점에서 주목된다.

소니는 오는 6월까지 자회사는 설립할 예정이지만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니는 앞으로 UHD(초고화질) 등 프리미엄 TV 사업에 집중하고 비용을 줄이면서 수년째 적자에서 허덕이고 TV사업을 연내 흑자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일본의 3대 메이저 TV 업체인 파나소닉과 샤프는 일찌감치 TV 사업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파나소닉은 아마가사키 PDP 공장을 폐쇄하고 오는 3월까지 PDP TV 시장에서 완전 손을 뗄 예정이다.

샤프는 이미 TV 사업 부문을 포기하고 중소형 액정 패널 중심으로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 TV 시장을 석권했던 필립스도 2012년 4월에 중국계 TP비전에 TV브랜드를 매각했다.

이들 기업의 TV 사업 사실상 철수는 한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0년대 이후 브라운관(CRT)에서 LCD TV로 세계 TV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과감하고 재빠른 투자로 시장을 리드했다.

반면, CRT TV에서 경쟁 우위에 있었던 일본의 주요 TV 업체들은 시장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높은 기술력과 고 품질에 대한 지나친 자만심 때문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면서 LCD에 대한 전략적 투자는 소홀히 하게 된 것이다.

또 업체들간 지나친 경쟁으로 서로 고립을 자초한 것도 문제였다.

기술과 시장 모두 업계를 주도한다는 자존심 때문에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외면했다.

일례로 LCD의 원조인 샤프는 한때 LCD 패널을 소니나 마쓰시타에 공급하기를 거부해 소니가 LCD 패널 개발을 위해 삼성전자와 손을 잡는 일까지 발생했었다.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2013년 3분기 누적 전세계 TV 시장 점유율(매출기준)에서 삼성전자가 26.5%로 1위를 달리고 있으며 LG전자가 15.8%로 2위다. 이어 소니가 7.0%로 3위를 기록중이다.

소니는 향후 UHD TV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이마저도 삼성전자가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차세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도 한국 기업들이 우위에 서 있다. 소니와 파나소닉은 지난해말로 OLED TV 개발 협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하지만 한국기업들이 안심할 수는 없다. 중국 TCL은 2011년 3.8%에서 2013년 3분기 5.6%로, 스카이워스는 3.1%에서 4.9%로 점유율이 증가했다.

중국 기업들은 한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해 과감하게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시설에 투자하고 있으며 중저가 TV로 빠르게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HS 박진한 이사는 9일 "일본 업체들의 몰락으로 TV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디스플레이 기술력이 향상되고 있는 중국이 브랜드인지도 상승을 위해 일본 업체들을 인수하면 상당히 위협적인 경쟁자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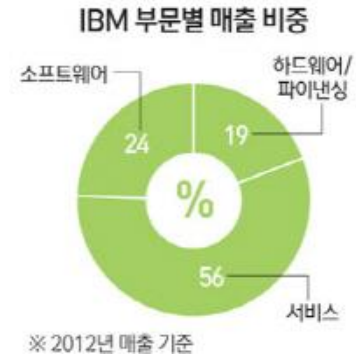
평판TV 시장 점유율 (단위:%)



IBM이 반도체 사업 전체가 아니라 생산 부문만 매각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반도체 설계 부문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을 인용해 6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WSJ 보도대로라면 IBM은 AMD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생산 부문은 아웃소싱으로 넘기려 하는 셈이다.

반도체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IBM같이 큰 회사라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며 생산 부문 매각은  
수익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앞서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IBM이 골드만삭스를 통해 반도체 사업을 인수할 잠재 업체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IBM은 매각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며, 조인트 벤처를 통해 반도체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잠재적인 후보로는 AMD에서 분사한 글로벌 파운드리, 대만의 TSMC 등이 언급됐다.

IBM은 현재 파워 프로세서와 메인프레임 컴퓨터용 칩을 직접 설계하고 생산한다.  
IBM 파워 서버는 유닉스 서버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메인프레임 역시 대형 컴퓨터 시장에선 특별한 경쟁 상대가 없다.

그리고 IBM은 소니 플레이스테이션3, 마이크로소프트 X박스 360용 칩도 생산해왔지만 소니와 MS 모두 차세대 시스템에선 AMD 프로세서로 돌아섰다.  
IBM은 현재 닌텐도 Wii 게임 콘솔용 프로세서만 제공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IBM은 파워 프로세서 디자인을 구글을 포함한 다양한 회사에 라이선스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이를 위해 IBM은 오픈파워컨소시엄을 결성했다.

참여 업체들은 파워 아키텍처 디자인에 기반한 칩을 만들 수 있다.  
부품 회사들은 프로세서 관련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다.  
오픈파워 컨소시엄에는 구글외에 엔비디아, 타이안, 멜라녹스 등이 포함됐다.  
IBM이 곧 선보일 파워8 프로세서부터 라이선스가 가능해진다.

## 반도체 휴대폰 등의 원천기술 사용료 증대가 주요 원인

지난해 우리나라가 해외에 지불한 지적재산권 사용료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수지도 3년만에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했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상수지 중 서비스수지에 속하는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수지는 지난해 54억9000만달러 적자를 냈다. 지적재산권수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이뤄진 지적재산권 사용에 따른 로열티 등의 수입과 지급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것이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은 해외로 나간 로열티가 국내로 들어온 수입보다 더 많다는 얘기다.

여기서 지적재산권은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과 판매권 등의 재산권과 이미 생산된 원고와 필름 등 원본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오는 3월말 2차 소송 공판을 앞두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은 지적재산권 분쟁의 대표적 사례다. 지적재산권수지는 해당 통계를 편제한 지난 1980년 이후 한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다. 사업서비스수지, 여행수지와 더불어 서비스수지를 악화시키는 만성적자수지로 분류된다.

지난해 적자 규모는 2010년(58억9000만달러) 이후 3년만에 가장 큰 규모다.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수지는 2011년 29억6000만달러로 적자폭이 크게 줄었다가, 2012년 46억7000만달러에 이어 지난해까지 다시 확대됐다. 이는 해외로 지급한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지급이 96억달러로 역대 최대 수준에 달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지급량은 30억달러 수준이었으나 불과 10여년만에 세 배로 늘어난 것이다.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 내년에 지급량은 100억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

반면 국내로 들어온 사용료 수입은 지난해 41억1000만달러로 지급량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사용료 수입은 2000년 6억9000만달러로 미미했다가 해외 현지법인 생산량이 확대되면서 국내 본사의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량이 증가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급량의 증가 속도에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해외로 나가는 사용료 지급이 늘어나는 근본적 원인은 '원천기술'에 있다. CDMA 휴대폰으로 시장을 선도했던 삼성전자는 부품을 개발한 미국 회사 퀄컴에 매년 수조원의 로열티를 지불해왔다. 해외 원천기술에 의존해 생산되는 제품의 수출이 증가할수록 지급해야 할 사용료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보다 3.0% 증가한 5709억2000만 달러였다.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수출 증가가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UN) 산하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는 원천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후진국의 과도한 로열티 지불이 문제점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으나 원천기술 보유 수준은 낮아 사실상 중간적 위치에 있다. 김인철 상명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는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하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히 드는데다 성공여부를 전망하기 힘든 리스크가 있어 쉽지 않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적재산권 기준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낮고 원천기술이 부족해 당분간 적자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 수입 및 지급 추이  
(단위: 억달러)



LG디스플레이가 일부 부품 · 소재 협력사에 대해 지난달부터 대금 결제일 연장을 통보했다.  
디스플레이 시장 불황이 이어지면서 현금을 최대한 확보해 차기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업계는 1차 협력사 자금 경색 여파가 2 · 3차 협력업체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해외 사업장에서 백라이트유닛(BLU) · 모듈 · 광학필름 등 주요 부품 · 소재 1차 협력사의 납품에 대한 대금 결제일을 기존 60일에서 최장 100일로 연장했다.

기간	영업이익	이익잉여금
2010년	1조8317억4700만원	7조311억6300만원
2011년	-6088억1200만원	6조633억5900만원
2012년	3250억8700만원	6조2389억8900만원
2013년 1분기	1512억8800만원	6조8032억4000만원
2013년 2분기	3658억8200만원	6조3452억4900만원
2013년 3분기	3891억9300만원	6조5901억6700만원
2013년 4분기	2569억5100만원	-

결제 기한이 90일로 규정돼 있는 중국 지역 협력업체나 분쟁 우려가 없는 대기업 · 해외 협력사, LG그룹 계열사, 범 LG계열 협력사가 주요 대상이다.  
공정거래법상 하도급대금 결제일 60일을 넘길 수 없어 국내 조달 품목은 제외됐고, 장비 등 납기가 긴 품목이나 소량 공급 제품은 그대로 60일(장비는 계약금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결제일 연장 조치는 디스플레이 시장의 장기 불황 여파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분기 LG디스플레이의 영업이익은 3분기 대비 34%, 지난 2012년 동기 대비 56% 하락했다.  
2 · 3분기 회복됐던 영업이익률이 다시 줄어들었다.

중국 광저우의 8세대 LCD 공장과 파주 발광다이오드(OLED176) 라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 자금을 미리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까지 이익잉여금이 약 6조5900억원으로 2012년 말 이익잉여금 6조2400억원보다 늘어난 상황에서 올해 투자계획은 지난해와 유사한 3조5000억원을 계획하고 있어 시급한 이유가 있었느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협력 업체들도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A사는 LG디스플레이와 협상을 통해 결제일을 최대한 앞당겼다.  
B사는 대리점을 중간에 끼워 활용하는 방식을 썼다.  
대리점은 단기 결제를 하고 LG디스플레이로부터 사후 결제를 받는 식이다.  
B사 사장은 “대리점 비용 등 추가 부담 때문에 수익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1차 협력사들의 자금 경색이 이어지면 원재료를 공급하는 2 · 3차 협력사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결제일 연장을 검토한 적이 없다” 며 “국내 60일, 중국에서는 90일 기준 결제일을 각각 적용하는 게 원칙” 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파운드리시장, 오는 2016년 650억달러 규모 성장  
삼성電, 사업역량 강화 및 중장기적 확대 계획...단, 리스크도 산적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성장성 부각 속에 삼성전자 역시 이 같은 변화에 중장기적으로 비중 확대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며, 시장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시장 성장에 따른 업체 간 경쟁심화 및 애플사(Apple) 리스크 등도 상존해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 ◆ 글로벌 파운드리시장에 주목...성장 가능성 '우뚱'

글로벌 파운드리시장이 앞으로 약 3년여간 지속 성장할 전망이다.

6일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드에 따르면 올해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12% 늘어난 480억달러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547억달러, 645억달러로 14%, 18%씩 성장할 것으로 분석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순수 파운드리 업체들의 올해 매출은 412억달러로 전년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과 2016년 각각 14%, 20%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종합반도체 업체(IDM)의 파운드리 규모는 전년 대비 올해 3% 성장이 예상되며, 2015년 1%로 주춤한 뒤 2016년 6%로 재차 향상될 전망이다.

## ◆ 삼성電, 사업역량 강화..."중장기적으로 확대"

최근 실적부진과 경쟁업체들의 두각 속에 우려가 증폭됐던 삼성전자 역시 이 같은 붐(Boom)에 편승하며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IC인사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 분야에서 지난해 39억50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 4위를 달성했다.

또한 3위인 UMC와의 매출 격차도 900만달러로 줄었다.

또한 파운드리 전문업체가 아닌 종합반도체회사(IDM)로는 최대 규모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IC인사이드는 삼성전자가 첨단 공정 및 자본 투자를 통해 파운드리 시장 진입에 성공했다고 평가하며, 파운드리 가동률을 끌어올릴 경우 연간 54억달러 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평가 속에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의 중장기적 확대를 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4일 열린 '2013년 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파운드리 사업 전략은 28나노 이하 첨단공정 비중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고객을 유치해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파운드리는 전체 매출에서 10% 정도 차지할 것이며, 첨단공정 비중을 확대해서 중장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파운드리 사업역량 강화를 위해 그간 흩어져있던 파운드리 지원조직들을 한 데 묶어 사업역량 강화에도 나섰다.

## ◆ 경쟁업체 성장세 및 애플發우려 만만치 않아

단, 경쟁업체들의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등 부담요인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일례로 타이완 '파워칩'의 경우 지난해 88%의 성장률을 보이며 업계 순위를 6위로 끌어올렸다.

지난 2011년 순수파운드리 업체로 전향한 이후 전체 매출에서 파운드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9%에서 2012년에는 67%까지 끌어올렸다.

애플발(發) 우려 또한 문제다.

삼성전자는 2007년 애플의 아이폰 출시 때부터 어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전량 공급하면서 스마트폰, 태블릿 시장과 AP시장을 키워왔지만, 애플과의 법정 공방 이후 양사 간 상호 의존도를 낮추려는 분위기, 그리고 애플이 자사 모바일 기기용 AP의 공급사를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로의 이전 리스크가 그것이다.

이처럼 성장 기대감에도 부담요인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최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분야 성장률이 급락한 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분야 지난해 성장률은 15%로 직전해인 2012년 57%의 급격한 성장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 반도체-통신-IT 전 분야 아우르는 특허 방어막 완성

삼성전자가 구글에 이어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시스코와도 특허 크로스라이선스(공유)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반도체와 통신, IT 등 전 사업분야에 걸친 특허 동맹이 완성됐다. 특히 삼성전자는 최근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인수합병(M&A)에도 적극 나서고 있어 특허 방어막은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 분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어 연구개발(R&D)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계약은 지난달 27일 구글과의 계약처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특허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출원하는 특허까지 포함돼 있다. 향후 10년간 양사는 특허 관련 분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삼성전자는 이번 시스코와 특허 공유로 9700여 건에 이르는 특허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시스코가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로 전세계 스위치와 라우터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통신 관련 기술을 대거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 시스코는 최근 10년간 네트워크 보안업체와 위성수신 업체, 소형 기지국 기술업체 등 41개사를 인수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전자는 통합서버와 무선통신 장비, 네트워크·단말기 보안, 화상회의 시스템 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다른 기업의 특허 공격을 막아줄 특허 우산의 밑그림이 완성됐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와 통신, IT 등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 분야에 튼튼한 특허보호막을 입힌 셈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SK하이닉스와 크로스라이선스를 체결했고 올 1월 램버스와의 계약도 연장했다. 앞서 도시바와 샌디스크 등과도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맺어 반도체 부문 특허 우산을 완성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나 구글과의 특허 공유는 휴대폰 사업에 방점이 찍힌다. 이를 통해 MS가 보유한 스마트폰 OS 기술과 구글이 인수했던 모토로라 통신 기술을 확보했다. 올 1월 에릭슨과 연장한 특허 공유도 통신 분야 관련 기술들이다.

구글과의 특허 공유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 글래스 등 미래 스마트 기기를 위한 포석도 숨어 있다. 구글이 이 분야에서 상당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웨어러블 기기의 경우 그 형태가 무궁무진하다. 그만큼 여러 분야의 기술이 집약돼야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올 수 있는 구조여서 다른 분야의 특허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 필수적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거의 전 사업분야에서 특허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체제를 완성했다”며 “가전 분야의 경우 삼성전자가 원천기술을 많이 갖고 있고 공유할만한 대상도 거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특허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삼성전자는 인텔렉추얼벤처스와 인터디지탈 등 특허소송을 무차별적으로 제기하는 이른바 '특허괴물'과도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했다. 가장 소송 가능성이 높은 곳을 사전에 틀어막은 셈이다.

삼성전자 주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현황

업체	시기	비고
에릭슨	2014.01	에릭슨 특허 라이선스 연장
구글	2014.01	포괄적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체결
램버스	2014.01	반도체 관련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연장
노키아	2013.11	노키아 특허 라이선스 연장
SK하이닉스	2013.07	반도체 관련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마이크로소프트	2011.09	휴대폰 OS 관련 기술 등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IBM	2011.02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인텔렉추얼 벤처스	2010.11	특허 라이선스
코닥	2010.01	카메라 기술 관련 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도시바	2009.07	반도체 관련 크로스 라이선스
샌디스크	2009.05	낸드플래시 관련 크로스 라이선스
인터트러스트	2009.03	DRM 관련 특허 라이선스
인터디지탈	2009.01	통신 관련 특허 라이선스

삼성전자가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인텔에 이어 2위 자리를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은 글로벌 1위 반도체업체인 인텔에 비해 3분의 2수준에 그쳤지만 영업이익은 인텔을 추월해 역전에 성공했다. 또 올 1분기에 처음으로 글로벌 ‘톱5’ 반도체 기업에 이름을 올린 SK하이닉스도 매출과 영업이익을 고르게 늘리며 상위권 군히기에 들어갔다.

5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글로벌 반도체 상위 11개사 가운데 영업이익을 공개하지 않은 도시바를 제외한 1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는 지난해 1~3분기 매출 251억6천만 달러를 기록해 인텔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인텔은 같은 기간 매출 388억7천400만 달러를 기록해 삼성전자를 137억 달러 차이로 앞질렀다. 삼성전자의 매출 규모는 인텔의 67% 수준이다. 하지만 전년 동기에 비해 삼성전자는 매출을 6.7% 늘린 반면, 인텔은 2.5% 감소해 두 회사간 매출 격차는 전년도에 비해 30억 달러 가량 좁혀졌다. 2012년 1~3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매출은 인텔의 59% 수준이었다.

영업이익에서는 삼성전자가 인텔을 추월했다. 삼성전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영업이익이 77.8%나 늘어난 45억6천만 달러를 기록해 35억400만 달러에 그친 인텔을 10억 달러 이상 앞섰다. 전년 같은 기간에는 인텔이 38억 달러, 삼성전자가 25억 달러를 기록한 바 있다.

2012년 3분기까지 8위에 머물러 있던 SK하이닉스는 PC용 D램을 생산하던 반도체 회사들이 모바일용 D램으로 눈을 돌리면서 물량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한 데 힘입어 지난해 1분기 5위 자리를 차지했고 이를 3분기까지 이어갔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3분기에 매출 100억6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간보다 45.1%나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도 24억1천850만 달러로 5위를 차지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미세공정 전환 및 수율 개선을 바탕으로 제품 수익 사업성이 개선됐고 SK에 편입되면서 적기 투자와 기술 개발 등 역량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글로벌 반도체시장에서는 퀄컴과 타이완세미컨덕터(TSMC) 같은 모바일 반도체 업체들이 특히 강세를 보였다. 스냅드래곤 시리즈로 더 유명한 스마트폰 전용반도체 생산기업인 퀄컴과 애플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TSMC는 삼성전자에 비해 매출이 100억 달러 이상 적었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많았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률을 11%에서 18%로 끌어올리며 인텔(9%)을 압도했으나 36%를 기록한 TSMC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다만 삼성전자의 경우 D램과 낸드를 비롯해 모바일 칩셋까지 모두 생산하는 종합반도체 회사라 어느 한 부분에 치우치 않고 고른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구분	매출		영업이익		증감률	
	2012년	2013년	2012년	2013년	매출	영업이익
인텔	39,864.0	38,874.0	3,841.0	3,504.0	-2.5%	-8.8%
삼성전자	23,574.4	25,160.8	2,564.8	4,560.4	6.7%	77.8%
퀄컴	14,440.0	18,847.0	4,131.0	5,142.0	30.5%	24.5%
타이완세미컨덕터	12,612.0	15,175.0	4,534.0	5,438.0	20.3%	19.9%
SK하이닉스	6,937.4	10,062.8	-263.1	2,418.5	45.1%	흑자전환
텍사스인스트루먼트	9,846.0	9,176.0	1,835.0	2,145.0	-6.8%	16.9%
마이크로테크놀로지	6,202.0	7,239.0	-485.0	333.0	16.7%	흑자전환
브로드컴	5,926.0	6,241.0	413.0	286.0	5.3%	-30.8%
로네사스 일렉트로닉스	6,323.7	6,151.8	-1,156.6	-345.0	-2.7%	적자감소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6,331.0	6,057.0	-1,352.0	-453.0	-4.3%	적자감소
전체	132,056.6	142,984.4	14,062.0	23,028.9	8.3%	63.8%

자료: CEO스코어 / 단위: 백만달러 / 2013년 매출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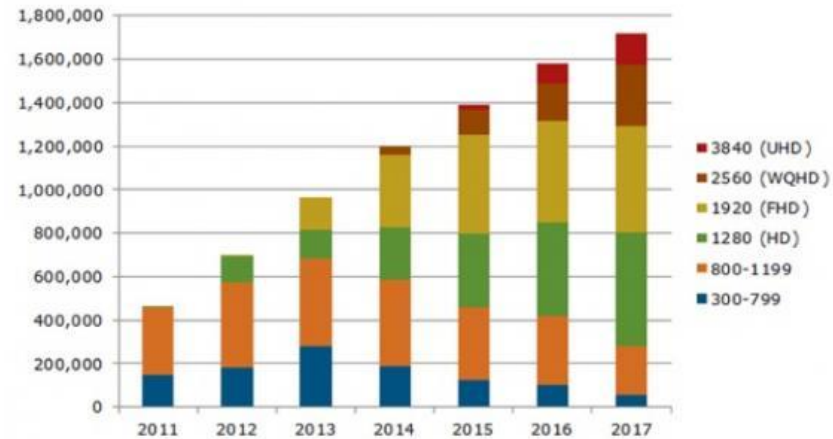


올해 HD급 화질 이상 5억7000만대 출하, 2K(QHD) 화질도 양산시작

스마트폰 화질이 더 선명해져 조만간 프리미엄 TV화질과 맞먹는 수준의 제품이 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작년까지 스마트폰 가운데선 풀HD(1920×1080)화질이 가장 해상도가 높았지만 향후 이보다 더 고화질 제품들이 시장에 나온다는 얘기다.

특히 올해부터 쿼드(Quad)HD로 불리는 2K(2082×1080) 화질 스마트폰도 일부 양산되고 내후년부터는 기존 풀HD(1920×1080) 화질보다 4배 선명한 4K(4096×2160) 화질의 스마트폰도 첫 선을 보일 전망이다.  
TV로 보면 초고선명(UHD)급 화질인 셈이다.



5일 시장조사업체 NPD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약 12억대 수준으로 이 가운데 약 5억7000만대가 HD(1280×720) 또는 풀HD급 화질로 예상된다.

작년까지 HD급 화질 이상의 스마트폰 비율은 전체 출하량의 29% 정도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47.5%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고화질 스마트폰 제품 출하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또 올해에는 쿼드HD 화질 스마트폰도 4100만대 정도 출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서치는 “AUO, JDI,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등 디스플레이 패널업체들은 이미 2K화질 생산에 들어갔고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GPU(그래픽 프로세서) 판매업체들도 이미 풀HD급 화질 이상의 제품을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5년부터는 쿼드HD 화질을 뛰어넘는 UHD급 스마트폰이 약 전 세계적으로 2300만대 정도 출하될 전망이다.  
UHD급 스마트폰 출하량 비중은 북미, 일본 등은 전체 출하량의 5% 이상, 유럽은 그 이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티나 탱 NPD 디스플레이서치 스마트폰 수석 연구원은 “고해상도 스마트폰 시장 성장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높은 해상도와 낮은 전력소비를 구현할 수 있는 AP에 의해 가능해 졌다”며 “개선된 화질로 소비자들에게 향상된 게임 경험 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문현 삼성디스플레이 전무는 앞서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14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로드맵 세미나’에서 “올해 풀HD급 화질을 뛰어넘는 쿼드HD 화질 스마트폰이 출시될 예정인데 향후 UHD급까지 화질을 더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전무는 특히 5인치 소형 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화면을 기준으로 440ppi인 모바일 풀HD화질을 쿼드HD(560ppi)에 이어 UHD(860ppi)까지 화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고 이를 위해 다이아몬드 픽셀구조가 더 적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구조조정 성과 증명..성장세 지속은 여전히 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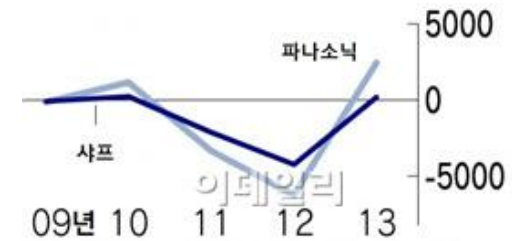
구조조정과 비용절감 등을 통해 경영재건을 진행중인 일본 가전 대기업 파나소닉과 샤프가 3년만에 나란히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그러나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여전히 큰 숙제로 남았다.

2013회계연도 1~3분기(4~12월) 최종손익 실적 추이(단위: 억엔, 출처: 니혼게이자이신문)파나소닉은 2013회계연도 1~3분기(지난해 4~12월) 2430억엔(약 2조5820억원) 흑자를 나타냈다.

4~12월 기준으로 사상 최고 흑자 기록이다.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보다 4% 증가한 5조6700억엔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에는 6238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내비게이션 등 자동차부품 판매 성장, 주택 자동화 설비 관련 사업 호조가 눈에 띄지만 수익 확대 원동력은 무엇보다 구조조정 효과” 라고 설명했다.

파나소닉은 지난해 직원 급여 삭감 등을 통해 1700억엔 가량의 고정비용을 줄였다.

이는 영업이익 증가폭보다 큰 규모다.

여기에 연금 시스템 변경과 헬스케어 사업 매각으로 1500억엔의 일회성 이익도 거뒀다.

가와이 히데아키(河井英明) 상무는 4일 실적 발표 자리에서 “추가적인 구조 개혁을 더 앞당겨서 추진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샤프는 지난해 4~12월 연결순이익 177억엔을 기록하며 전년 4243억엔 적자의 아픔을 떨쳐냈다.

샤프의 여섯개 사업 부문 모두 2분기 연속 영업흑자를 만들었다.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1% 늘어난 2조1572억엔으로 집계됐다.

샤프 역시 감원 등을 통해 1000억엔에 달하는 고정비용을 덜궂낸 것이 주효했다.

그밖에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수주를 따내고 특허 수익 등이 뒷받침되면서 당당히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이다.

다카하시 고조(高橋興三·58) 샤프 사장은 “재정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것은 변함이 없다.

구조 개혁에 매진하겠다” 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그러나 양사는 구조조정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취약함을 여전히 갖고 있다” 고 지적했다.

파나소닉은 성장 동력으로 자동차 및 주택 사업을 내세우고 있지만 오는 4월 소비세율이 5%에서 8%로 오르면 자동차와 주택에 대한 수요는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샤프는 실적이 바닥을 치긴 했지만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LCD 사업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 우려된다.

소니가 PC 사업을 접는다. 부진에 빠진 전자 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더 큰 골칫덩이인 TV 사업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니혼게이자이는 소니가 투자 펀드인 일본산업파트너즈와 PC 사업 매각 협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5일 보도했다. 일본산업파트너즈가 소니 PC 사업을 양도받을 신규 법인을 만든다.  
매각 대금은 400억~500억엔(약 4257억~5321억원) 규모다. 신설 법인이 바이오 브랜드로 사업을 펼친다.  
소니도 약간의 지분 투자를 검토한다. 신설 법인은 일본 내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다.  
69개국에 달하는 해외 사업도 끌고 가지만 적지 않은 지역에서 발을 뺀다.  
PC 사업에 근무하는 약 1000명 임직원 중 대다수는 신설 법인으로 옮긴다.  
교섭이 결렬되더라도 소니는 PC 사업의 몸집을 줄여서 스마트폰을 맡고 있는 자회사  
소니모바일커뮤니케이션즈로 이관할 계획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PC와 시너지 효과를 내려는 청사진이다.

1982년 PC 사업에 진출한 소니는 1996년 `바이오(VAIO)` 브랜드를 내놔다.  
TV와 비디오 등 가전 중심에서 IT 분야로 영역을 넓힌 분기점이다.  
바이오가 고급 PC와 노트북의 대명사로 자리 잡으면서 절정기에는 연간 870만대까지 판매했다.  
2010년 이후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보급이 늘어나면서 PC 시장이 위축됐고 소니 역시 연간 판매량이  
580만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3년 1~3분기 기준 소니의 세계 PC 시장 점유율은 1.9%에 불과하다. 순위로는 9위다.  
PC 사업 실적을 따로 발표하지 않지만 업계에서는 영업 적자에 빠졌다고 추정했다.

PC 사업 철수는 히라이 가즈오 사장의 결단이다.

히라이 사장은 만성 적자의 늪에 빠진 전자 부문 재건을 위해 스마트폰과 게임기, 이미지센서라는 세 가지 성장동력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은 최근 2년 동안 판매량이 두 배로 늘었다.  
게임기 신제품 플레이스테이션4 역시 공전의 흥행 가도를 달리는 중이다.  
이미지센서는 르네사스 공장을 인수할 정도로 호조다.

이제 관심은 TV에 쏠린다. TV에 비하면 PC는 새 발의 피다. 소니 TV 사업은 9년 연속 적자를 냈다.  
2012 회계연도 적자는 무려 696억엔(약 7425억원)에 달했다.  
초고화질(UHD) TV를 앞세워 흑자 전환을 꾀한 2013 회계연도에도 전망은 불투명하다.  
니혼게이자이는 소니 관계자 말을 인용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할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히라이 사장이 “TV 사업 포기는 없다”고 못박았지만 안팎의 상황은 점점 열악해지는 분위기다. 자본 시장의 압력도 거세다.  
소니 대주주인 미국 헤지펀드 서드포인트는 “무엇보다 TV 사업 구조조정에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니는 우선 TV 제조 인력을 대상으로 조기 퇴직 신청을 받아 고정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PC 사업 매각으로 소니는 오는 3월로 끝나는 2013 회계연도에서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고와 설비에서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TV와 디지털카메라, 2차전지 역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소니는 당초 300억엔(약 3200억원) 흑자를 목표로 제시했다.

## 소니 구조조정 일지

시기	내용
1999년 3월	임직원 1만7000명 감원, 제조 거점 20% 축소
2003년 10월	임직원 2만명 감원, 브라운관 생산 중단, 삼성 전자와 LCD 사업 통합
2004년 4월	게임기 사업 담당하는 SEC 완전 자회사 편입
2005년 9월	임직원 1만명 감원, 제조 거점 20% 축소
2008년 12월	임직원 1만6000명 감원, 생산 거점 10% 축소
2011년 10월	소니에릭슨 해산, 스마트폰 사업 지분 인수
2011년 12월	삼성전자와 LCD 사업 결별
2012년 4월	임직원 1만명 감원, 스마트폰·게임기·이미지 센서를 3대 성장동력으로 선정
2012년 9월	올림푸스와 자본 제휴

삼성전자가 반도체 외주생산(파운드리) 전략을 대량 소품종 중심에서 다품종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와 애플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매출 구조를 적극 다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시스템LSI 파운드리사업팀 내에 고객센터 (CS) 조직을 신설했다.

각 영업파트별로 쪼개져 있던 파운드리 마케팅 인력도 파운드리 마케팅팀으로 한데 모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신성장동력으로서 파운드리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 2년간 파운드리 매출액 순위				〈자료:IC인사이드〉	
순위(2012년)	회사명(본사)	유형	2012년 매출액	2013년 매출액	증가율
1(1)	TSMC(대만)	순수파운드리	169억5100만달러	198억5000만달러	17%
2(2)	글로벌파운드리즈(미국)	순수파운드리	40억1300만달러	42억6100만달러	6%
3(3)	UMC(대만)	순수파운드리	37억3000만달러	39억5900만달러	6%
4(4)	삼성전자(한국)	종합반도체회사(IDM)	34억3900만달러	39억5000만달러	15%
5(5)	SMIC(중국)	순수파운드리	15억4200만달러	19억7300만달러	28%
6(8)	파워칩(대만)	순수파운드리	6억2500만달러	11억7500만달러	88%
7(9)	뱅크스(대만)	순수파운드리	5억8200만달러	7억1300만달러	23%
8(6)	화홍그레이스(중국)	순수파운드리	5억8200만달러	7억1300만달러	5%
9(10)	동부하이텍(한국)	IDM	5억4000만달러	5억7000만달러	6%
10(7)	타워재즈(이스라엘)	순수파운드리	6억3900만달러	5억900만달러	-20%

지난해 말에는 국내 AP 개발 팹리스 업체,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103) 컨트롤러 업체 등과 28나노미터(nm) 파운드리 계약을 신규 체결하는 등 고객사를 확충하고 있다.

특히 CS 인력 총원은 신임 정세웅 파운드리사업팀장(부사장)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시장 후발 주자의 약점을 조기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 대형 고객사 확보와 최첨단 미세 공정 기술을 무기로 사업을 전개해왔다.

몇 개 제품에 집중하는 게 설계자산(IP)을 보유하는 데 유리하고 공정을 구축하기 용이하다.

다양한 공정 기술보다 하나의 공정 생산기간(스루풋)을 고도화하는 역량이 탁월한 삼성전자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실적 부진과 시황 변화로 인해 이같은 전략을 전면 손질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파운드리 사업 실적이 예상보다 지지부진했던 데다 올해도 대형 고객사를 새로 유치하기를 쉽지 않다.

작년 갤럭시S4에 AP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서 가동률이 급감했고, 애플 아이폰5S용 A6 AP 역시 물량이 예상보다 감소했다.

지난 2012년에는 매출액이 전년 대비 57% 성장했지만 지난해에는 15% 신장에 그쳤다.

삼성전자가 공들여온 퀄컴·미디어텍이 TSMC와 글로벌파운드리즈를 각각 선택하면서 기존 전략으로는 매출 확대가 쉽지 않다.

한두 고객사에 의존하면 지속적인 성장은커녕 리스크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세계 1위 파운드리인 TSMC가 퀄컴·미디어텍·엔비디아 등 AP업체 외에 고주파(RF), 각종 센서로 제품을 다각화해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한 이유다.

삼성전자는 한두 개 제품 물량이 줄면 타격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전문 파운드리 업체에 비해 다종 제품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며 “그러나 상보형금속산화(CMOS238)이미지센서, 전력관리반도체(PMIC)를 직접 제조한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1인치 이상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TV와 노트북, 모니터 판매가 줄어든 데 따른 여파인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LCD 시장 출하량 규모는 6억9816만6000대로 전년(7억5726만2000대) 대비 7.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규모는 714억2500만달러로 10.1%나 줄어들었다.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시장 1, 2위 자리를 지켰지만 대만 업체들과 비교하면 출하량 및 매출액의 마이너스 성장세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BOE와 차이나스타 등 중국 업체들은 LCD 시장이 쪼그라드는 상황에서도 성장세를 유지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억8666만5000대의 대형 LCD를 출하, 26.7%의 점유율로 시장 1위 자리를 유지했다. 매출액 기준으로도 196억8000만달러, 27.5%의 점유율로 1위 자리를 지켰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억4137만대의 LCD를 출하해 20.2%의 점유율로 2위 자리에 올랐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지난해 대형 LCD 부문 매출은 145억800만달러로 20.3%의 점유율을 기록, 2위 자리를 지켰다.

대만 이노룩스(1억2431만1000대, 17.8%)와 AUO(1억1682만3000대 16.7%)는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에 이어 출하량 순위 3,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점유율에선 AUO(128억2000만달러, 17.9%), 이노룩스(114억7100만달러, 16%)가 각각 3위와, 4위를 기록했다.

BOE와 차이나스타는 지난해 각각 4600만9000대, 2192만700대의 대형 LCD를 출하해 점유율 6.6%, 3.1%로 5위와 6위를 차지했다.

BOE와 차이나스타의 작년 매출액은 각각 29억3400만달러, 25억2200만달러를 기록했다.

BOE와 차이나스타, CEC-판다 등 중국 업체들은 전년 대비 출하량 및 매출액에서 성장세를 일궜다.

한국과 대만 업체들은 마이너스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이들은 자국 시장을 등에 업고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말 시생산 기념식 가져..일부 장비반입 연기에도 본생산 예정대로

삼성의 첫 중국 내 전(前)공정 반도체라인이 시생산에 들어갔다.  
이어 올 상반기 본가동을 목표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삼성전자와 중국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2년 9월 기공식 후 1년3개월 만인 지난해말 1기 주생산라인의 가동에 들어가는 기념식을 열고 중국 내 반도체 생산시대 개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시생산 기념식은 공장건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이를 축하하기 위한 행사로 중국 시안시 정부 관계자와 삼성전자 중국 현지법인장 등이 참석해 진행됐다.

시생산은 현재 셋업 중인 반도체 전공정 라인에 실제 웨이퍼를 투입, 라인이 제대로 가동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시생산을 통해 계획대로 진행되면 올 상반기 안에 본격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도체 생산공정상 첫 로트(Lot·웨이퍼 투입 묶음 단위, 25장의 웨이퍼 한 묶음)가 투입돼 실제 칩으로 가공·생산되기까지 30~40일가량 소요된다.  
지난해 12월27일 투입된 첫 로트의 점검은 이달 초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첫 로트 투입 후 모든 공정을 다 진행해 실제 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각각의 공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이런 점검과정을 통해 공정에서 수정할 부분 등을 찾아내 셋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 상반기 공장건설이 완료되면 생산량 증대작업(램프업)을 거쳐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하반기에는 완전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일부 장비업체의 장비납기일이 연기되면서 공장 가동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삼성전자 측은 개별 장비납품일정 조정으로 보며 된다고 밝혔다.  
진공펌프업체 엘오티베쿰은 시안에 공급하는 장비의 납기일을 당초 1월31일에서 2월20일로 연기했다고 밝혀 삼성 반도체 시안공장의 공사가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기도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통상 반도체라인 건설과정에서 일부 장비의 경우 일정이 조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전체 공정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섬서성 시안의 삼성반도체 공장은 반도체공정의 핵심인 전공정 라인으로 미국 텍사스 오스틴공장에 이어 해외라인으로는 두 번째, 중국에서는 첫 번째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이다.  
이 공장에서는 최첨단 10나노급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예정이며, 초기 23억달러를 포함해 총 7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다.  
이는 삼성의 중국투자 중 역대 최대규모다.

라인 가동은 빠르면 4월,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1개 라인을 건설하는데 통상 1년6개월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2012년 9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오는 3월이면 1년6개월이 돼 오는 4월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전공장 라인과 함께 반도체 검사와 조립과정을 담당하는 후(後)공정라인에도 5억달러를 투자, 올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후공정라인은 전공정라인 근처 부지에 건설 중이다

삼성전기 · 삼성SDI · 삼성디스플레이, 태블릿PC · 차세대 기기 주목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둔화는 삼성전자 IT·모바일(IM)사업부는 물론 삼성전기와 삼성SDI 등 부품 계열사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졌다. 그동안 스마트폰 덕을 봤던 삼성그룹의 전자 계열사들은 올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이 더 정체될 것으로 보이자 납품업체 다변화 등 위기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IM부문 영업이익은 5조4700억원으로 직전 분기와 비교해 18%(1조2300억원) 줄어드는 등 스마트폰의 성장세 둔화가 가시화되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디스플레이의 4분기 실적도 타격을 입었다. 삼성전자가 매출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삼성전기는 지난해 4분기 35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특히 주요 스마트폰 모델의 재고조정 영향으로 카메라모듈·모터(OMS)부문의 매출은 전 분기와 비교해 33%나 감소한 4534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삼성전기는 스마트폰 성장세는 둔화되는 반면 태블릿PC, 울트라HD TV, 웨어러블 기기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자가격표시기(ESL), 전자기 노이즈 제거용 수동소자(EMC) 등 신사업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스마트폰, PC 등 IT가 아닌 비IT(Non-IT) 시장도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세트업체에 대한 거래선도 다변화 돼있지만, 최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가 좋다보니 상대적으로 납품 비중이 높아진 것”이라며 “웨어러블 등 차세대 기기 시장이 더 개화된다면 우리도 실적이 나아질 것이고 자동차가 IT로 접목되는 것에 대비해 내구성과 신뢰성을 갖춘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배터리 등을 납품하고 있는 삼성SDI 역시 지난해 4분기 55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전환했다. 특히 전체 매출의 62%를 차지하는 소형전지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4% 감소한 7490억원을 기록했다. 삼성SDI 관계자는 “소형전지 매출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안 되고 환율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중국 스마트폰 및 안드로이드 태블릿PC 시장의 성장으로 폴리머전지가 고성장 할 것으로 보이며 전동공구와 E-bike 등 신규애플리케이션의 리튬이온 배터리 채용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SDI는 ‘자동차용 중대형 전지’와 ‘전력저장장치(ESS)’ 등 근본적인 포트폴리오 다변화 작업 중이다. 자동차 전지는 유럽과 북미지역에서 선점한 시장 지배력을 극대화하고 올해 중국 합작공장을 설립하는 등 신규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BMW i3 등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터리의 매출 증가도 기대해볼만 하다.

ESS 부문도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수주한다는 목표로 일본, 독일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6조4600억원, 영업이익은 1100억원을 기록했다. 전 분기 대비 매출은 20%, 영업이익은 89%나 급감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0%, 7% 감소했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주요 이익은 소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사업에서 났다. 즉 대부분의 물량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가 소화했던 것. 결국 스마트폰용 AMOLED 패널 판매 부진과 단가인하 영향이 실적 급락에 영향을 미쳤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OLED 주문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올해 고해상도의 프리미엄부터 범용 제품까지 라인업을 확대하고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제품을 적극 개발해 신기술을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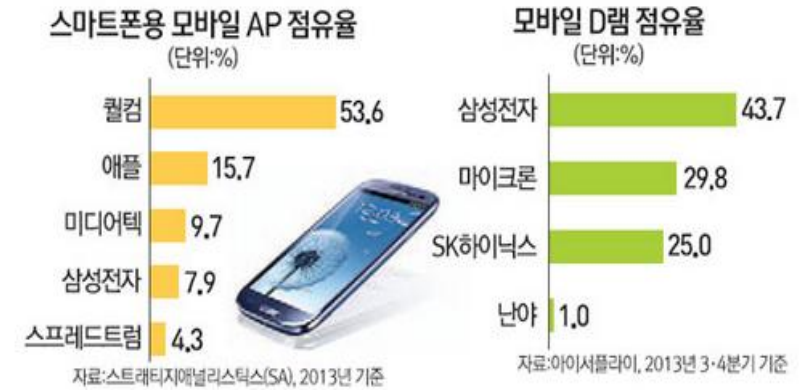
##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삼성전자	5조4700억원	전분기 대비 18% ↓
삼성전기	- 359억원	적자 전환
삼성SDI	- 556억	적자 전환
삼성디스플레이	1100억원	전년 동기 대비 1/10 수준

데이터처리속도 2배 높은 64비트 AP · 4GB D램 조합  
9월 출시 갤럭시4 탑재 예상 애플 · 퀄컴 추격 발판 마련

삼성전자가 올해 모바일 반도체 시장에서 신무기를 앞세워 주도권 확보에 나선다.

그간 삼성전자는 모바일 D램 시장에서는 절대 강자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스마트폰의 두뇌로 불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분야에서는 미국의 퀄컴과 애플 등에 밀려 기를 펴지 못해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올해 모바일용 64비트 AP와 4GB(기가바이트) D램의 강력한 조합을 선보이며 모바일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반격의 시점은 삼성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4'가 출시될 오는 9월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 AP는 PC의 중앙처리장치(CPU)처럼 스마트폰 ·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시스템 반도체다. 특히 64비트 모바일 AP는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32비트 AP에 비해 이론적으로 데이터 처리속도를 두배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이다. 스마트폰 중에서는 애플이 지난해 9월 출시한 '아이폰5S'에 64비트 AP를 처음 탑재했으며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진영에서는 아직 탑재된 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남성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 사장은 지난해 "64비트 엑시노스 AP의 개발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설계한 64비트 AP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64비트 AP의 또 다른 특징은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4GB D램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 32비트 AP는 구조적으로 3GB D램까지만 인식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2GB D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3GB D램은 지난해 9월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노트3'에 처음 탑재됐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해 말 4GB D램을 만들 수 있는 차세대 8Gb(기가바이트) LPDDR4 모바일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상태다. 20나노급 공정을 적용한 8Gb LPDDR4 모바일 D램 칩 4개를 쌓으면 4GB D램을 구성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업계의 관심은 이르면 2월, 늦어도 3~4월 출시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5'에 64비트 AP와 4GB D램이 탑재될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양산 시점과 기술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당장 올 상반기에 나올 갤럭시S5에 64비트, 4GB D램 조합을 채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아직 4GB D램을 구성할 수 있는 8Gb LPDDR4 D램 양산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또 64비트 AP도 갤럭시S5에 탑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삼성전자가 야심 차게 준비 중인 64비트 AP와 4GB D램은 올 9월께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 갤럭시 노트4에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기존 스마트폰에 주로 쓰이는 32비트 AP를 대체할 64비트 AP와 이에 최적화된 4GB D램이 스마트폰에 채택되면 스마트폰의 성능이 한 단계 진화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삼성전자가 하반기 이들 제품을 본격적으로 내놓을 경우 퀄컴과 애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바일 AP 시장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 20개국 · 500개사 참가, LED코리아 2014 행사 동시 개최

세미콘코리아 2014(SEMICON Korea 2014)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세미콘코리아는 ‘모바일 혁신(Mobile Innovation)’을 주제로 세계 반도체장비재료산업을 선도하는 20개국, 500개 업체가 역대 최대 규모인 1800개 부스 규모로 참가한다.

이들 업체는 마이크로전자 제조공정 솔루션을 비롯한 최신 공정기술, 장비, 재료 등을 선보이며 반도체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퀄컴(Qualcomm)에서 일하는 로웬 첸(Roawen Chen) 박사의 기조연설로 개막하는 올해 전시회는 국내 최대 반도체 축제인 만큼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이그제큐티브 포럼(Executive Forum)에서는 ‘반도체 재료의 시대(Advanced Materials for Next Generation Device)’를 주제로 IBM의 청 램(Chung Lam) 박사, 글로벌파운드리즈의 폴 베서(Paul R. Besser) 박사, EULV 기반개발센터(EIDEC)의 이치로 모리(Ichiro Mori) 이사, 에어프로덕츠 아시아의 에드워드 쇼버(Edward C. Shober) 상무가 연사로 나서 반도체분야 글로벌 경영진들의 비전을 제시한다.

또 반도체 공정별 전문가가 단계별 공정 이슈와 최신 기술을 논하는 SEMI 기술심포지엄을 비롯해 ▲센서기술에 초점을 둔 시스템LSI 포럼 ▲테스트 포럼 ▲측정 및 검사(MI) 포럼 ▲반도체시장의 주요 화두를 다루는 마켓세미나 ▲반도체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국제 표준을 소개하는 SEMI 표준프로그램 ▲주요 해외소재업체가 참여하는 구매상담회 ▲글로벌 장비공급업체와 국내 부품업체 간의 신규 비즈니스 협력을 지원하는 OEM 해외장비업체 구매상담회 ▲업계 리더가 한 자리에 모이는 네트워킹 행사인 프레지던트 리셉션 등도 예정돼 있다.

특히 세미콘코리아 2014 기간 중에는 국내 유일의 LED 제조기술 전문 전시회인 LED코리아 2014도 함께 열린다.

이틀에 걸쳐 열리는 LED코리아 컨퍼런스는 스마트 LED융합 애플리케이션을 주제로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의 발표가 예정돼 있다.

특히 서울대 윤의준 교수는 ‘고체조명(SSL)의 발전과 도전과제’, 루멘스의 유태경 대표이사는 ‘디스플레이 및 조명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LED기술’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행사를 주관하는 세미콘코리아는 현재 공식홈페이지([www.semiconkorea.org](http://www.semiconkorea.org))를 통해 사전등록을 진행 중이며, 온라인 사전등록 시 전시장 입장이 무료라고 밝혔다.

세미(SEMI, 국제반도체 장비재료협회)는 1970년에 미국 마운틴뷰에서 설립됐으며, 세계 반도체 장비, 재료산업 및 평판 디스플레이(FPD), 태양광 산업을 대표하는 세계 유일의 국제 협회다.

한국의 200여개사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1900여개의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본부를 두고 서울, 방갈로르, 베이징, 베를린, 브뤼셀, 그르노블, 신주, 모스크바, 상하이, 싱가포르, 도쿄, 워싱턴 D.C에 사무국을 갖췄다.

국제표준규격(Standards), 무역전시회(SEMICON Exhibition), 마켓통계, 기술 심포지엄, 대정부관계 등의 활동을 펼친다.

반도체 · 디스플레이 · 전자부품 1·2위 기업의 명암이 작년 4분기 실적에서 엇갈렸다. 일반적으로 1위 기업이 2위 기업보다 매출은 물론 수익성까지 앞서는 것이 정상인데, 작년 4분기에는 2위가 1위보다 수익성이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업계 1위를 달리는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갤럭시’ 시리즈 판매 부진에 따른 영향을 고스란히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 LGD, 삼성디스플레이보다 4분기 매출 · 영업이익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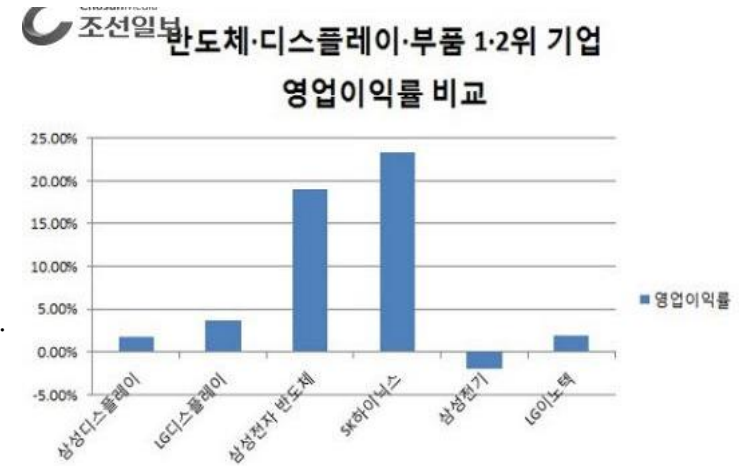
삼성디스플레이는 경쟁사인 LG디스플레이보다 지난해 매출이 3조원 가까이 많았다. 하지만 4분기 실적만 살펴보면 매출 · 수익성 모두 LG디스플레이가 삼성디스플레이를 앞질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4분기에 매출 6조4600억원, 영업이익 1100억원을 기록했다. 전 분기와 비교해 영업이익이 8000억원 이상 감소했다. 반면 LG디스플레이는 4분기에 매출 7조790억원, 영업이익 2569억원을 달성, 삼성디스플레이보다 우월한 실적을 냈다. 김양재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LG디스플레이는 아이패드 신제품에 고해상도 패널을 많이 공급, 상대적으로 양호한 이익률을 기록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의 경우 4분기 LCD 사업에서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 ◆ LG이노텍 ‘아이폰’으로 웃고…삼성전기 ‘갤럭시’로 울고

삼성전기는 4분기에 35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기판 · 칩부품 · 파워 · 네트워크 모듈 등의 사업이 부진했는데, 특히 카메라모듈 출하 감소로 OMS(카메라모듈 · 모터)부문 매출이 전 분기 대비 33%나 감소한 4534억원에 그쳤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연말 고객사 재고조정과 환율, 일회성 비용 등의 요인으로 적자를 냈다”고 설명했다. 반면 LG이노텍은 4분기에 288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4분기 매출은 삼성전기(1조7100억원)보다 10% 정도 적은 1조5439억원을 달성했지만 내용면에서는 LG이노텍의 실적이 좋았다는 평가다. LG이노텍은 4분기에 광학솔루션사업에서 분기 최대인 7051억원의 매출을 벌였다. 고화소 카메라 모듈이 잘 팔린 덕분이다. 권성률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갤럭시S 4’가 2분기 정점을 찍고 하반기 들어 판매 감소세를 보인 것이 삼성전기의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LG이노텍의 경우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출하가 늘면서 수혜를 봤다”고 말했다.

## ◆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화재에도 영업이익률은 삼성 앞서

SK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이익률은 23%대로 삼성전자 반도체사업(19%)보다 4%포인트 이상 많았다. 매출은 삼성전자 반도체가 SK하이닉스보다 3배 이상 크지만, 수익성에서는 SK하이닉스가 앞선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작년 9월 중국 우시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4분기 출하량이 D램은 13%, 낸드플래시는 14% 감소했다. 하지만 공급이 줄면서 D램 가격이 올라, 실적에 미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이선태 NH농협증권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의 경우 4분기 실적에서 시스템LSI의 수익성이 안 좋았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시스템LSI 생산능력을 늘린 것에 비해 가동률이 오르지 않으면서 영업이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 12% 증가 480억달러 규모 ... 2016년까지 두 자릿수 성장세

반도체 수탁생산(파운드리) 시장이 올해부터 3년 간 지속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드에 따르면 올해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480억달러로, 전년 대비 12% 성장한다. 이 가운데 순수 파운드리 업체들의 매출은 412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4% 증가하며, 종합반도체 업체(IDM)의 파운드리 규모는 지난해 대비 3% 성장한 68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순수 파운드리 업체들은 2016년까지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된다.

2015년에는 478억달러로 14%의 성장률을 보이며, 2016년 시장규모는 572억달러로 20%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IDM의 파운드리 규모는 한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2015년 매출은 68억달러로, 1% 성장에 그치고, 2016년 매출은 6% 늘어난 73억달러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순수 파운드리 업체들의 약진에 힘입어 전체 파운드리 시장은 올해부터 3년 동안 두 자릿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은 14% 증가한 547억달러의 매출이 예상되며, 2016년에는 18% 성장한 64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IC인사이드는 관측했다.

향후 파운드리 시장은 순수 파운드리 업체들과 IDM의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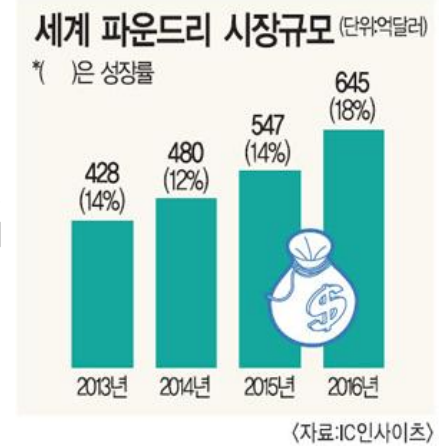
관전 포인트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계약관계다.

IC인사이드는 애플이 자사 모바일 기기용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의 공급사를 IDM 진영의 대표회사인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로 옮길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지난해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428억달러였다.

이 중 삼성전자는 39억5000만달러의 매출을 올려 시장 4위를 지켰고, 동부하이텍은 5억700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한 계단 상승한 9위에 이름을 올렸다.

시장 1위는 대만의 TSMC(198억5000만달러)가 차지한 것으로 IC인사이드는 분석했다.



반도체 업계에 올해 상반기 또다시 `보릿고개`가 예상된다.

지난해 하반기 삼성전자 중국 시안 공장(팹) 투자와 SK하이닉스 중국 우시 공장 화재로 반짝 호황을 누렸지만 올 상반기 소자 업체의 투자 계획이 없어 다시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투자 여부에 따라 극과 극으로 갈리는 실적을 만회하는 방안을 장비업계 스스로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주요 반도체 장비 투자 계획이 하반기에 집중돼 장비 업계가 상반기 다시 한 번 침체를 겪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연말까지 중국 시안 공장에 반입한 장비로 1단계 공정을 세팅하고 있다.

웨이퍼 5만~6만장 규모, 3D 낸드플래시 위주로 생산한다.

당초 1단계로 3만~4만장 규모 투자를 예정했지만 지난해 낸드플래시 메모리 수요 증가에 맞춰 생산 능력을 늘려 놓은 상황이라 곧바로 2단계 투자를 단행하기는 힘들다.

1분기 양산을 시작하고 올해 낸드플래시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경기도 화성 17라인 라인 역시 장비 투자 계획이 미정이다.

일단 공장 건설이 마무리 되고 14나노 반도체 외주생산(파운드리) 공정이 개발되는 하반기에 장비구매의향서(PO)를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 자사 모바일·서버 등 주력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개발 성공 여부, 글로벌 AP 업체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잡는지 여부에 따라 투자 규모는 달라진다.

SK하이닉스는 경기도 이천 공장 증설에 올해 1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일반적인 반도체 공장 건설 비용을 감안하면 시설 투자 외에 장비 투자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 M12라인 일부 증설, 중국 우시 공장 미세공정 투자가 남아 있지만 신설 투자는 없다.

작년 공장 화재로 투자 규모가 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오히려 장비 투자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하반기 삼성전자 17라인 등 투자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당장 상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SK하이닉스 공장이 건설 되고 신장비가 반입되는 올해 말 가시적인 규모의 투자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장비 업체도 글로벌 업체들처럼 인수합병(M&A)을 통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대기업 투자 변동으로 인한 만성적인 실적 부침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올해 투자를 발표한 TSMC, 도시바, 글로벌파운드리즈 등 해외 공급선으로 영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 Will-be S&T 김민규



SK하이닉스가 올해 초 신설한 조직인 미래기술전략총괄 사장에 삼성전자 시스템LSI 사업부 부사장직을 역임한 서광벽씨를 영입,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서 사장은 미국 인텔을 거쳐 2000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후 시스템LSI 사업부 시스템온칩(SoC) 기술개발실장(전무), 파운드리 사업팀장(부사장), 시스템LSI사업부장 보좌역을 역임한 인물이다.

서 사장은 2009년 3월부터 2012년 하반기까지 국내 팹리스 업체인 코아로직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국내외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업계에선 메모리 전문업체인 SK하이닉스가 시스템반도체까지 아우르는 종합반도체업체로 도약하기 위해 서 사장에게 미래기술전략총괄직을 맡긴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SK그룹에 편입된 이후 “보유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을 통해 제품 및 제조 역량을 키우면서 시스템반도체사업에서 차근 차근 성장 기회를 발굴하겠다” 라고 밝힌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청주 200mm 웨이퍼 M8 라인에서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공장의 총 생산용량은 웨이퍼 투입 기준 월 10만장으로 이미 용량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작년 연말 기준 D램과 낸드플래시를 제외한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 이미지센서) 매출액 비중은 4%였다.

SK는 최근 삼성전자 출신 인사들을 두루 영입하고 있다.

지난해 영입된 오세용 SK하이닉스 제조부문장(사장)은 삼성전자 출신의 반도체 제조 혁신 전문가다.

SK그룹의 정보통신기술(ICT) 성장추진총괄직으로 영입된 임형규 부회장 역시 삼성전자에서 메모리개발, 시스템LSI사업부장, 기술총괄사장, 종합기술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중국 시장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는 애플이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레노버의 모토로라 인수로 새로 만들어진 '레노로라(레노버+모토로라)'가 주인공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마켓와치는 레노버가 모토로라를 사면서 애플 중국 공략의 최대 위협 세력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레노버는 지난달 29일 구글로부터 모토로라를 29억1000만달러(약 3조1100원)에 인수했다.

양 위안칭 레노버 CEO는 CNN머니와 인터뷰에서 “모토로라 인수는 애플과 삼성을 겨냥한 것”이라며 “이들을 밟고 올라 설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억대 스마트폰 판매 목표를 내놨다.  
레노버와 모토로라는 지난해 각각 4500만대, 1000만대 스마트폰을 팔았다. 목표가 두 배에 가깝다.

마켓와치는 레노로라가 삼성전자보다는 애플에 더 큰 위협이라고 점쳤다.  
레노버는 중국에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는데 북미 모토로라 브랜드를 더해 점유율 상승을 꾀한다.  
레노버는 이미 중국에서 애플에 높은 장벽이다.  
레노버가 삼성전자를 추월하는 것보다는 차이나모바일과 계약을 맺고 중국 시장 확대를 노리는 애플 성장을 저지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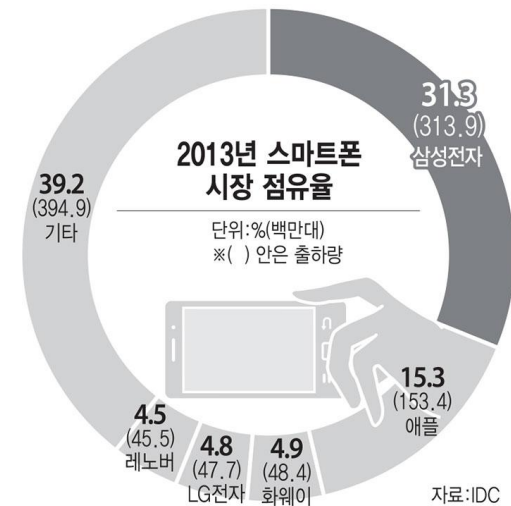
마크 모스코워츠 JP모건 연구원은 “레노버의 모토로라 인수 후폭풍이 애플에 가장 심하게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스마트폰은 PC 시장처럼 되고 있는데 애플처럼 고가 제품만 가진 기업에 가격 인하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시장은 성장이 주춤하고 공급 기업이 통합되며 제품 간 차별성이 사라졌다.  
애플은 주로 고가 제품을 파는데 삼성전자에 이어 레노버까지 물량 공세 수위를 높인다. 중국은 레노버로 북미와 라틴아메리카, 유럽에선 모토로라 브랜드로 공략한다.

팀 바자린 크리에이티브 스트래티지 연구원은 “스마트폰 시장 경험이 없던 레노버는 단기간에 중국에서 3위 기업으로 성장했다”며 “이미 IBM 싱크패드를 인수하며 PC 시장성공 스토리를 가진 무서운 기업”이라고 말했다.

IDC에 따르면 레노버는 지난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 5위를 차지했다.  
모토로라 인수가 마무리되면 레노버는 화웨이와 LG전자를 제치고 3위에 오른다.  
레노버는 지난해 스마트폰 기업 중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다. 삼성전자가 2012년에서 2013년 42.9%, 애플이 12.9% 성장에 그친 반면 레노버는 91.7%나 판매량을 늘렸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애플이 주도하는 태블릿PC 시장 성장세도 뚜렷하다.  
지난 4분기 레노버는 태블릿PC 시장에서 325%나 성장하며 5위에 올랐다. 애플, 삼성, 아마존, 에이수스 뒤를 이었다.

레노버는 2011년 모토로라가 모토로라 모빌리티와 모토로라 솔루션으로 분할될 때부터 휴대폰 사업부에 관심이 높았다.  
양 위안칭 CEO는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인수한 후에도 에릭 슈미트 회장에게 사업부를 살 의사를 밝혔다.  
이번 계약이 두 달 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된 이유다.



국내 LCD 시장 축소로 소재 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가속도가 붙었다.

국내 LCD 라인 축소와 중국 LCD 라인 확대가 맞물리면서다.

편광판 등 중국 소재부품 관세까지 오르면서 국내 소재 업계 움직임도 빨라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소재업체들이 한국 후공정 라인에 전공정 라인을 구축하거나 영업영역을 넓혀 중국 시장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LG화학은 중국 난징 공장에서 재단 등 후공정만 했으나 지난해 처음 전공정 라인을 갖췄다. 지난해 말부터 2300mm 초광폭 라인을 가동했으며 1분기 내에 추가로 1500mm 광폭 라인도 가동할 예정이다. 연말 추가 투자도 검토하고 있다.

LG화학이 중국 투자에 속도를 내는 것은 중국의 관세 인상 때문이다.

급증하는 중국 LCD TV용 편광판 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가 6%에서 8%로 인상돼 현지 생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LG화학은 더 이상의 국내 투자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 중국 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닝정밀소재도 중국 대응을 시작한다.

삼성코닝정밀소재를 코닝이 인수하면서 국내로 제한했던 영업권역 문제가 없어졌다.

코닝이 삼성코닝정밀소재 인수를 결정한 것도 이 같은 사실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국내 LCD 시장은 축소된 반면에 중국 생산량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관세 인상이 6세대까지만으로 한정된 것도 코닝에는 기회로 작용했다.

중국 LCD 수요 증가에 따라 광학 필름 분야 중국 기업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필름 원단 진출도 가속화됐다.

SKC는 지난해 말 일본 도요보·토요알루미늄과 합작해 광학용·열수축용 필름 원단이 되는 PET필름 공장을 난통시에 세우고 최근 가동에 들어갔다.

SKC는 중국이 LCD 산업 집중화와 태양광 시장 장악으로 세계 최대 PET 필름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현지 공장을 건설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클 뿐만 아니라 관세 등 각종 제도 때문에라도 중국에 반드시 진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재 투자도 한국 보다는 중국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 디스플레이 소재 중국 관세 현황

품목	관세율	최혜국 세율
LCD 기판 유리	6세대까지 4→6%로 인상 7세대 이상 4%	15%(향후 15%까지 인상 가능)
편광판	6→8%로 인상	8%
도광판, 확산판	6→8%로 인상	8%

자료:업계 종합

美·日서 전량 수입하던 CMP장비...사업 착수 5년 만에 반도체 양산라인 공급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기업 케이씨텍이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던 반도체 연마장비(CMP : Chemical Mechanical Planarization, 화학적·물리적 평탄화 장비)를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다.

3일 업계 관계자는 "케이씨텍은 신사업으로 추진해왔던 반도체 CMP장비를 국내 우수 반도체 제조사와의 납품계약을 거쳐 최근 양산라인에 공급하기 시작했다"며 "올해 이 장비에서만 400억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CMP장비는 반도체 원판(웨이퍼) 위에 필요한 물질이 순차적으로 원활하게 입혀질 수 있도록 원판 표면을 화학 및 기계적인 방식으로 평평하게 연마하는 기능을 한다. 전세계적으로 연간 1조원 안팎의 시장이 형성된 이 장비는 그동안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 미국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일본 에바라 등 2개 해외업체가 과점해왔다.



케이씨텍은 2009년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메카텍(현 두산건설)으로부터 반도체장비사업을 인수하면서 CMP장비 연구개발(R&D)에 본격 착수했다.

반도체 제조과정 가운데 연마공정과 세정공정이 합쳐지는 추세와 관련, 기존 주력인 반도체 세정장비(클리너)와의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함이었다.

그 결과, 케이씨텍은 CMP장비사업에 착수한지 5년여 만에 관련 장비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반도체 세정장비와 함께 CMP장비, 가스공급장치(가스케비닛) 등 다양한 반도체장비 제품군을 일괄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특히 그동안 액정표시장치(LCD)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 디스플레이장비 위주였던 사업구조를 반도체장비로 확대해 안정적인 제품군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게 됐다.

CMP장비는 최근 이 회사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반도체 연마공정 재료(슬러리)와도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이 관계자는 "케이씨텍이 지난해 국내와 중국 등지에서 디스플레이 장비수주가 이어지면서 실적이 전년보다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올해도 CMP장비 등 반도체장비사업 안정화로 지난해에 이어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과 KDB대우증권 등 증권사들은 케이씨텍이 지난해 2000억원 안팎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럴 경우, 케이씨텍의 지난해 실적은 2010년 기록한 사상 최대(2303억원)에 이어 역대 2위가 될 전망이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흡연과 과도한 음주, 운동 안하기, 과일과 채소의 부족한 섭취 등 4가지 나쁜 행동은 12년 먼저 늙게 만든다고 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오래살 수 있을까? 미국의 건강관리 사이트인 '헬스닷컴'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10가지 팁을 제시했다.

▶**과식 안하기**=100세까지 살기를 원한다면 당신의 접시에 일정량의 음식을 남기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지구상의 장수촌을 연구한 덴 부에트더는 일본의 장수그룹은 80% 정도 포만감을 느꼈을 때 식사를 중단한다고 전했다. 세인트루이스대학 연구진은 덜 먹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적절한 성생활**=일주일에 2~3회의 만족스런 섹스가 수명을 3년 연장시킬 수 있다고 한다. 섹스는 때에 따라서는 30분 달리기를 했을 때 만큼의 칼로리를 소비한다. 또 규칙적인 섹스는 혈압을 낮추고 숙면을 취하게 하며, 면역력을 증대시키며, 심장을 보호한다.

▶**TV 끄기**=바보 상자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당신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2010년의 한 연구에선 하루 4시간 이상 TV를 시청한 사람들은 2시간 이하의 사람들보다 사망확률이 46%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햇빛 피하기**=너무 많이 햇빛에 노출되는 것을 피할 경우 피부암을 차단할 수 있다. 또 주름과 미세 라인, 축 처진 피부를 예방해 당신을 더 젊게 보이게 할 수 있다. 스킨케어 목록에 선크림을 추가하는 것은 빠를수록 좋다.

▶**인적 네트워크 형성하기**=한 연구에 따르면 가족 및 친구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지 않으면 심장병에 걸릴 위험성이 매우 높다. 외로움은 높은 콜레스테롤이나 흡연만큼 위험하다. 특히 외로움은 우울증에 걸리기 쉬운 노인들에게 매우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적당한 음주**=하루 2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여성과 하루 3잔 이상의 술을 마시는 남성들은 체중증가부터 시작해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건강에 나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적은 양의 음주는 당신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난 2010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가벼운 음주(여성은 하루 한잔, 남성 하루 2잔)은 심장에 좋다.

▶**과일과 채소의 섭취**=섬유질과 비타민, 과일, 야채로 채워진 당신의 몸속 영양소는 심장질환 위험을 76%까지 낮출 수 있고 유방암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과일과 야채에 들어있는 산화방지 물질은 항염증 작용을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주름도 제거할 수 있다.

▶**운동에 집중하기**=매일 이뤄지는 운동은 젊음을 용솟음치게 한다. 지난 2008년의 한 연구에 따르면 달리기와 같은 규칙적인 고강도 운동은 수명을 4년 연장시킬 수 있다. 운동이 심장과 마음, 신진대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생각하면 이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하루 30분 빠르게 걷기와 같은 적당한 운동은 심장관련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금연**=담배를 끊는 것은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35세까지 금연에 성공한 여성들은 6~8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흡연으로 이미 폐암과 같이 폐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람들도 금연을 통해 생존확률을 높일 수 있다.